세계 속의 한국 : 현재와 미래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나라 중 하나인 한국을 다시 방문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저의 최근 저서인 『21세기 준비』(*Preparing for the Twenty-First Century*)를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책에서 강대국이 아닌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또한 제 10장 「개발도상권의 승자와 패자」의 상당한 부분은 "세계의 다른 지역, 특히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은 1950년대 이래로 경제적인 성공을 거듭할 수 있었는가"를 분석하는 데 할애되기도 했습니다. 대만이나 싱가폴 등 다른 동아시아 무역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인구와 국토의 크기에 비해 매우 높은 정도의 영향력을 세계경제에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상 번성했던 무역국가인 한자동맹이나 베네치아공국을 상기하게 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가 가운데 하나로 손꼽는 것이 단지 경제적 성장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한국의 경제적 조건이 성숙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수십년내에 이와 같은 잠재력이 정치, 외교, 국제경쟁 등의 부문으로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도전"과 "발전"이라는 말은 이와 관련있는 "경향"이나 "문제"라는 말과 더불어 최근 논평가들이 우리의 사회적 상황을 해설하면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신문을 보면서 경향이나 도전 내지 발전에 관한 기사를 종종 읽으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 생각에 이것은 우리가 변화의 속도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현대의 과학, 사업, 기술, 발명, 통신수단, 세계 각지로부터의 뉴스 수신 등 모든 부문은 갈수록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

례하여 개인이나 기업, 나아가 사회 전체에 가해지는 압력이 가중된 결과, 사람들은 현재의 삶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 복잡한 것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농민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물건을 제조하는 일이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고통스럽게 체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평범한 사람들만이 압력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각국의 정부도 심각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해 프랑스의 프랑소아 미테랑 대통령과 영국의 존 메이저 총리는 자국 통화에 대한 대규모 국제투기 때문에 정책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미국도 대소말리아 정책에서 같은 경험을 겪었습니다. 일부 논평가들에 따르면, CNN(Cable News Network)은 테드 터너 사장의 지휘 아래 참담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소말리아의 상황을 시청자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미국정부가 소말리아에 개입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미군이 파병된 이후에는 전사한 특공대원을 포함한 미국병사들의 모습을 반복해서 방영함으로써 미군이 소말리아로부터 철수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즉, 오늘날 세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급속한 역사적 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역사는 종언을 고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강력한 힘을 획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세계적 변화 속에서 몇몇 국가들은 그 지리적 위치, 그리고 향후 직면해야 할 다층적 차원의 도전 때문에 특별한 지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조찬석상에서 한국의 지리적 위치가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인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한국이 유럽의 서해안이나 플로리다 남쪽의 카리브해로 옮겨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국이 북한의 김일성정권으로부터 수 천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있으며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에 위치하는 중간규모의 면적을 가진 국가도 아니라고 가정해 봅시다. 물론 이것은 상상일 뿐이지만, 이렇게 가정해 보면 한국의 기본적 상황이 지정학적 요소에 의해 규정되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국이 21세기를 준비하면서 직면해야 하는 다층적 차원의 도전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 내용을 첫째, 현재 당면한 도전, 둘째, 중·단기적 미래의 도전, 셋째, 장기적 미래의 전세계적인 도전이라는 세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위의 분류를 문제틀로 하여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차원인 현재 당면한 도전 중 가장 급박한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까다롭고 예측불가능한 북한정권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특별한 해결책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저같은 일시적인 방문객보다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 저는 북한의 실상에 관한 다양한 글들을 읽으면서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정부가 한반도에서 심각한 외교적 분쟁을 초래하지 않고 대결의 전면에 나서지 않으며 때때로 어려운 고비가 닥치더라도 북한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타당한 정책입니다. 윈스턴 처칠 영국수상은 "말로 하시오, 말로"라고 외치는 것이 "전쟁이다, 전쟁"이라고 외치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에 관해 협상하는 것이 그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유발할 만큼 자체 방위수준을 낮추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저는 처칠의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간 부각된 또다른 도전은 서유럽 및 동유럽과 미국의 성장율이 타 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극히 낮은 상황에서 미묘하게 표출되는 세계무역상의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관해 미국 내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으며, 제 생각으로는 만일 클린턴 대통령이 NAFTA 비준을 그처럼 과단성있고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실패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진행된 GATT 협상은 더욱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나 백악관측의 강력한 정치적 압력에 힘입어 비준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로써 무역부

문에서 클린턴대통령의 입지가 공고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무역 및 서비스 개방에 반대하는 세력이 사라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경제가 생산체제의 부단한 현대화라는 형태로 근본적인 도전을 받고 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만일 NAFTA 협정과 GATT 협상이 모두 부결되었다면 한국 경제의 전망은 얼마나 더 어두워졌겠습니까? 그랬을 경우, 미국과 유럽은 공히 동아시아 전체에 맞서 보호주의로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NAFTA와 GATT 협상이 타결된 것은 한국의 입장에서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차원인 중·단기적 미래의 도전은 한국을 둘러싼 강대국들과의 정치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저는 만약 한국이 대서양 연안이나 카리브해 지역에 위치했더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엄연히 그곳에 존재하지 않으며 일본, 중국, 러시아, 나아가 미국을 상대로 다국간 외교를 현명하고 치밀하게 수행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다국간 관계는 단순한 형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한일관계는 한중관계와 상호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중관계가 악화되면 그것은 한국의 정부와 기업에게도 중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단기적으로 —1990년대라고 합시다— 동북아지역과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4대 강국의 국내상황은 어떻게 변화하겠습니까? 성급한 추측일지도 모르지만 이들 4개국 가운데 미국의 경우가 변화를 예측하기가 가장 쉽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비록 미국의 경제성장이 전반적으로 더디기는 하지만 1980년대에 비해 은행파산이나 재정위기가 닥칠 확률은 훨씬 적어졌습니다.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은 신중하고 보수적인 방향으로 설정될 것입니다. 클린턴 대통령과 그 각료들이 의료보험, 교육, 직업훈련, 범죄 등에 대한 대규모 국내개혁을 목표로 내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부시 행정부에 비해 외교정책 그 자체에 덜 집착하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방예산이 대폭 삭감될 전망은 전혀 없으며, 미국이 아무도 예기치 못한 선언을 발표하고 전세계에 표방해온 자국의 의무를 축소한다고 선포하는 일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정부 및 민간부문의 인사들은 클린턴 대통령에게 안정성, 지속성, 그리고 안보를 약속하는 이미지를 구축하라고 조언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우방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클린턴 대통령이 브뤼셀, 동유럽, 러시아를 순방하면서 행할 연설의 어조를 잘 들어보십시오. 틀림없이 그 어조는 매우 신중하고 긍정적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 등 구 소련에 속했던 국가들의 변화야말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불안정한 요소 중에서도 특히 보수세력이 다시 집권하거나 내전이 발생할 경우, 그 파장이 시베리아를 거쳐 러시아 극동지역까지 퍼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무역시장을 교란시키는 경우를 제외하면 러시아 내부에서 발생하는 일이 한국에 대해 주요한 직접적 위협이 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10년전만 해도 대단해 보였던 구 소련의 군사체제는 이제 매우 비효율적인 것으로 전락했으며 해체되거나 부분적으로 부패해가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정부 일각에서 부활하고 있는 제국주의적 움직임 때문에 경제적 혼란이 심화되고 개혁과정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지도부가 이런 경향을 계속 반복할 경우, 이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신생독립국들의 저항을 억누르는 데에만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처지가 될 것입니다. 1980년대 브레즈네프의 서투른 정책이 소련에 대항하는 국가들의 연합을 촉진시켰듯이, 러시아가 계속 군비를 증강하면 그 진의를 의심하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등 강대국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연합을 구성할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러시아 국내의 개혁과 투쟁은 중요한 변화임에 틀림없지만 한국의 중·장기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다릅니다. 일본의 침략사를 인식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일본이 외교안보정책을 전환하거나, 군비확장을 시작하거나, 또는 동아시아에 대한 경제적 지배를 시도하지 않을까 하여 도쿄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 이런 주장을 펴는 국수주의자들은 아직까지 견제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근거에서 중·단기적인 미래에도 이들이 견제당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중 하나는 일본경제의 불확실성입니다. 은행자산 등의 자산가치와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소비자의 신뢰 역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경제적 미래에 대한 공공연한 불안이 팽배하여 이것이 미래에 대한 자족적인 예측으로 표출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경제를 신뢰하지 않으면 소비나 구매를 하지 않게 되고, 이는 다시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다른 하나는 정치적 영역의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자민당과 관료가 주도하던 일본의 낡은 정치질서는 확실히 붕괴되고 있으나, 과연 새로운 정치질서가 이를 대체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일본을 방문했을 때 저는 멕시코, 터키, 한국 등에서 볼 수 있는 신세대의 정치가, 사상가, 기업가들이 부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치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그리고 중일관계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일본은 대외관계에서 신중한 태도로 일관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저는 중국이야말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중요한 국가이며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주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중국처럼 광활한 나라의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대한 변화와 그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해 보십시오.

일부 전문가들의 예언대로 발전정도와 생활수준의 측면에서, 그리고 그 반영인 정치적 지배구조의 측면에서 번영일로의 해안지역과 자원이 고갈된 가난한 내륙지역간의 격차가 점증하게 되면 과연 중국이 둘 이

상의 지역으로 해체될 것인가? 중국은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으로 변하기 전에 인구와 환경문제로 인한 압력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현 지도부의 후계자로 시장경제와 개방에 반대하는 세력이 집권하여 경제불안을 야기할 것인가, 아니면 개혁주의자들이 집권하여 경제적 변화뿐 아니라 헌법상의 변화까지 추진하는 신중한 정책을 채택할 것인가?

중국지도부가 정권의 형태를 불문하고 경제성장과 아울러 군의 현대화를 계속 추진한다면 이는 중국이 20세기 말이나 21세기 초까지 지역의 초강대국이 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가? 만일 그렇다면 일본이나 미국, 그리고 중국에 인접한 소국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 한국의 입장에서는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와 같은 기능을 담당할 동아시아안보협력회의(East Asia Conference of Security and Cooperation)를 적극 추진해야 하지 않는가? 한국처럼 중간규모의 국토를 가진 국가에게는 지역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지역안보협력까지 확보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이 아닌가?

세번째 차원인 장기적 미래의 전세계적인 도전에 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정치 · 외교나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문제인 전세계적 현대화 등 여러가지 형태의 도전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보다는 간략한 논평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장기적 미래의 전세계적인 도전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염두에 두었던 것은 제가 『강대국의 흥망(*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에서 다루었던 강대국간의 관계가 아니라 『21세기 준비』에서 분석했던 국경을 초월한 광범위한 종류의 세력들, 특히 지구촌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개의 거대세력간에 형성되고 있는 긴장입니다.

세계의 한편 즉, 아프리카, 남아시아, 중국내륙, 중동, 중남미 등 가난한 지역에서는 인구폭발이 계속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부유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기술폭발이 계속되어 변화와 현대화의 속도가 날이 갈수록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폭발은 미국의 대한정책이 어떻게 변하건, 러시아에서 누가 옐친의 후계자가 되건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력들이 모두 구체적이

고 명확한 형태로 드러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이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비군사적이고 초국가적인 세력들로부터 발생하는 압력의 형성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만으로 이들 전반을 무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화산폭발이나 지진발생의 전야와도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야흐로 지구촌이 21세기로 진입하려는 이 시점에, 세계인구는 매년 9천 5백만명씩 증가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미래의 고용과 번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상품제조·무역·작물재배의 방식이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돌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국제문제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발전이 초래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발전된 지역과 덜 발전된 지역간의 단절입니다. 저는 이것을 "인구학적-기술적 단층선"(demographic-technological fault-line)이라고 이름지었습니다. 단층선의 한편에는 부유하고 기술수준이 높지만 인구증가율이 정체되었거나 감소하고 있는 성숙한 사회가 있으며, 다른 한편에는 빈곤하고 자원도 고갈되었으나 인구가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는 사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20세 미만의 젊은이들은 필사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다가 결국 단층선을 넘어 부유한 사회로 이민하는 경우가 증가함으로써 보다 부유한 사회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단층선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남쪽의 북아프리카는 빈곤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사회인 반면, 북쪽의 남유럽은 상대적으로 부유하지만 대량이민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날로 인구가 감소하는 사회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호주와 인도네시아 등 비슷한 단층선은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동아시아에서는 아직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동아시아인들은 이 문제를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몇 전문가들은 빈곤하고 자원이 부족하며 인구과잉상태인 중국의 내륙지역과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있는 중국의 해안지역 사이에도 단층선이 형성될 위험이 이미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인들은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주의깊게 연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학적-기술적 단층선에 의해 유럽과 아프리카, 미국과 중남미 사이에 생겨난 간극이 축소되지 않고 오히려 확대될 경우, 이는 동아시아 지역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유럽과 미국이 타국으로부터의 이민을 방지하기 위해 폐쇄정책으로 선회한다면 이들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 대해서도 편협하고 보호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유럽인과 미국인에게 지난 30년간 동아시아가 이룩한 발전상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그동안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동아시아에서는 생활수준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핵가족화와 출생율 저하가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아직까지 인구폭발이 계속되고 있는 나라는 경제성장이 뒤쳐진 버마와 방글라데시 정도입니다. 경제성장을 이룩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인구증가를 억제하고 지속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구촌의 다른 지역들이 동아시아의 이와 같은 장점을 모방할 수만 있다면 이는 전세계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국이 현재와 미래의 세계 속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현재 당면한 차원에서는 1993년의 상황, 즉 남북관계와 세계무역협상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둘째로 중·단기적 미래의 차원에서는 한국을 둘러싼 4대 강국인 러시아, 일본, 미국, 중국의 변화전망과 그것이 한국에 미칠 직·간접적 영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셋째로 장기적 미래의 차원에서는 21세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변화하고 있는 초국가적 세력에 대해, 특히 기술과 인구의 측면에 촛점을 두고 간략하게 논의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새로운 자극과 흥미를 자아내게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다양한 논평을 기대합니다. 저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세계경제연구원 및 한국경제신문사와 제 강연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토 론

사 회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훌륭한 연설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논의의 장을 열어 주신 케네디 교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 의 **김경원** (사회과학원 원장, 전 주미대사)

케네디 교수의 발표를 매우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교수께서 한국의 외교정책 담당자들에게 조언하실 때 사용하신 표현 중 하나를 인용한다면, 오늘의 발표는 매우 "신중하고 현명한" 것이어서 저로서는 동의하지 않을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문제틀을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는 것은 복잡한 사안을 다루기에 편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차원에 대한 정의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한국이 현재 당면한 도전에 관한 첫번째 차원의 정의에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오는 길에 저는 교통체증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긴 주차장처럼 되어 버린 도로 위에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 앉아 초조하게 시계바늘을 쳐다보면서 제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해야만 했습니다. 그 때 저는 한국이 현재 당면한 가장 긴급한 도전은 북한이 아니라 대도시의 교통체증이라고 느꼈습니다.

좀 더 진지하게 말씀드리자면, 물론 우리도 북한과의 협상이 전쟁보다 낫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평화를 위해 완전히 헌신하는 측은 종종 그렇지 않은 측에 의해 좌우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 국제관계의 현실적 비극이며, 이에 대해서는 케네디 교수께서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평화정책은 유화정책으로 변질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교수께서 인용하셨던 윈스턴 처칠도 유화정책에는 동의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회담의 진전에 반드시 필요한 성과를 이끌어내야 하

는 지점은 어디인가? 또 회담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보복위협과 협상추진을 어느 정도로 병행해야 하는가? 바로 이것이 한국의 정책담당자들이 북한의 핵개발 의혹에 대처하면서 직면하는 딜레마입니다.

한편 케네디 교수께서는 NAFTA와 GATT 협상이 비준되어 한국에게도 다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 자신 역시 최근에 동일한 요지의 글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당면한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과가 이렇게 되어 다행이라는 수준을 넘어 좀 더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이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무역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국내의 산업구조조정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과제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냉전 종식 이후의 국제관계는 이데올로기나 군사적 대립이 아닌 경제에 의해 규정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조건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적응해야만 합니다. 쌀시장을 개방하면서 한국이 겪은 경험은 극적이라기 보다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향후 시장을 개방하면서 수없이 직면하게 될 어려움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변화를 극복하여 나가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힘과 지혜를 가지고 변화에 대처하는 동시에 이로 인해 불행을 겪게 되는 사람들에게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면 정치적 분열이 발생할 위험마저 있습니다.

이제 중·장기적 도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사소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케네디 교수께서는 미국의 상황이 가장 예측하기 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반적으로 이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만일 교수께서 미국의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씀하셨다면 저는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국의 대중국정책을 보십시오. 미국 대통령들은 해마다 중국에게 최혜국(MFN)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여부를 가지고 마치 햄릿과도 같이 우유부단하게 행동해 왔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대중국정책의 기조를 결정하는 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1970년대에 카터 대

통령이 클린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인권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중국의 인권문제를 제기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당시 미국정부는 중국의 외교적 승인에 필요한 각종 조치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인권상황은 근본적으로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보이며, 미국도 중국의 인권문제를 진지하게 거론할 의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이유는 미국의 의회와 정부가 국내의 여론에 부응할 필요를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 중국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케네디 교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중국은 매우 중요한 국가입니다. 중국이 현대적인 산업강국으로 대두한 일은 근래에 이루어진 발전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놀랄 만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국의 변화가 일본과 미국의 대중국정책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칠 중국의 역동적 변화는 국내적 요소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국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규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해 관찰자의 입장에서 일도양단식 논리로 이것은 종속변수이고 저것은 독립변수라고 규정하기는 불가능하지만 한 요소를 다른 요소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외교정책 담당자라는 입장에서 볼 때, 당분간은 4대 강국 모두와 그들간의 상호작용을 주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처음에는 전문가의 눈에만 포착되는 작은 변화일지라도 그것이 이후 타국의 상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케네디 교수께서도 한반도가 다른 지역에 위치했을 경우를 가정하면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함으로써 변화가 야기할지도 모르는 손실을 최소화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이고 세계적인 차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케네디 교수의 새로운 저서 『21세기 준비』를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으나, 한편으로는 그 주장이 지나치게 맬더스주의적인 비관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맬더스주의적 상상력에 기반한 다른 주장들과 마찬가지로 케네디 교수의 논지도 특정한 경향을 추출하여 그것에 지나치게 집착한 결과라고 느껴지며, 이러한 관점에 투영된 미래는 비극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의학자가 제게 말하기를, "만약 쥐에게 시금치만 계속 먹이면 쥐는 암에 걸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특정한 시기에 단 하나의 경향만을 확신하고 그것이 다른 경향과 일으키는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거기에 미래를 투영하면 비록 그의 통찰력이 감히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높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맬더스주의적 결론으로 귀착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제 마음에 다소 걸리는 부분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주목하여 왔습니다. 힘의 상대적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변화는 5백년만에 처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대역사는 유럽 내지 서양이 부상하는 과정이자 중국 내지 동아시아 전반이 몰락하는 과정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5백년간 주된 흐름을 이루어 온 이 경향은 이제 전도될 찰나에 처했으며 상대적 힘의 중심은 다시 동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지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도기적 현상으로 끝날 수도 있고, 지난 몇 백년간 서양이 그러했던 것처럼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역사적 경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만일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선진적이고 기술지향적인 주요 산업강국으로 계속 부상하고, 중국이 오늘의 발표내용처럼 단순한 지역적 초강대국에 머무르지 않고 충분한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세계적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자 미국에게 전략적으로 도전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과연 서양

은 심리적으로 힘의 이동과 지위의 변화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서양은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공존할 수 있습니까?

조지 케넌(George Kennan)은 국제관계에서 한 나라의 정부가 직면하는 문제는 바로 다른 정부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정부의 입장에서든지 다른 나라의 정부가 자신에게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 '노'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큰 위험은 언제나 힘의 균형이 결정적으로 이동하는 시기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저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동양과 서양이 냉전의 잔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맥락에서 겸허하게 답을 구하고, 각자의 진정한 힘의 원천과 합치하는 방향으로 영향력을 배분하여 평화를 도모하리라고 기대합니다.

질 의 **김기환**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회장)

앞서 사공 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과 김 경원 대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훌륭한 발표를 해 주신 케네디 교수께 다시 한 번 찬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케네디 교수께서는 심오한 사상가이자 뛰어난 연설가로서 문자 그대로 전세계적인 명성을 얻으신 분입니다. 오늘의 발표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명성을 확신하게 해 주었습니다.

특히 저는 케네디 교수께서 한국이 당면한 세 가지 차원의 도전을 그토록 명쾌하게 정의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케네디 교수의 분류는 이 문제에 관한 저의 사고를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제기할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케네디 교수께서 규정하신 도전의 본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현재 당면한 도전으로 교수께서는 두 가지를 언급하셨습니다. 북한핵문제에 대처해야 한다는 긴급한 요구와 무역상대국들과의 무역마찰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그것입니다.

저의 첫 질문은 무역마찰과 관련된 것입니다. 다가올 무역마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국은 미래에 발생할 무역마찰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저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 수 년간 한국이 직면하게 될 무역마찰의 본질, 즉 마찰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선진산업국가의 보호주의입니까, 한국과 주요 무역상대국들 간의 거시경제적 불균형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한국수출의 급격한 팽창입니까? 다가올 무역마찰은 1980년대 후반에 한국이 경험했던 무역마찰과 다른 것입니까? 되돌아보면 1980년대의 무역마찰은 대부분 한국과 주요 무역상대국, 특히 미국의 거시경제정책이 불일치한 데에서 기인했거나 1970년대에 한국이 추진했던 산업정책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발생할 한국의 무역마찰은 이와 구별되는 것입니까?

저의 두번째 질문은 중·단기적으로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강대국들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시행해야 할 정치적 조정과 관련된 것입니다. 교수께서는 이 시기의 한국을 둘러싼 4대 강국으로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을 지목하고, 이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나라로 중국을 지적하였습니다. 미국은 예측하기가 매우 쉽고, 러시아는 산적한 국내문제 때문에 한국의 미래에 영향을 주기 힘들 것이며, 일본은 "거품경제"에서 비롯되는 각종 경제문제와 정치적 난관 때문에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중국이 힘의 관계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도전으로 대두할 가능성이 크다면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중국이 한국에 대한 도전으로 대두한다면 그것은 중국의 경제적 성공 때문입니까, 아니면 실패 때문입니까?

저의 세번째 질문은 한국이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속하는 데 방해가 될 전세계적 위협의 근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교수께서는 21세기에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직면할 문제가 인구학적·기술적 "단층선"의 형성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러한 비

유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확신이 가지 않습니다. 만일 단층선과 같은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조만간 폭발이나 지진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미래가 지질학적 단층선만큼 결정론적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철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저의 네번째 질문은 케네디 교수께서 미래를 예측하신 내용의 본질과 관련된 것입니다. 저는 사회 내에서 학자에게 부여된 일차적 역할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언젠가 사석에서 김경원 대사께서 제게 "학자의 일차적 역할은 사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을 때 그 사회가 미래에 부딪힐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의 일차적 역할은 일단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비싼 수수료를 받고 그것을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현재 제대로 기능한다고 할지라도 미래의 가능성에 관한 전망은 언제나 요구되는 법입니다. 정치가의 역할은 사회에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타당하다는 가정 하에 저는 케네디 교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교수께서는 정치가들만 이롭게 할 날카로운 경고 대신 희망의 원천이 될 수 있는 21세기의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친절을 베푸실 수 없습니까?

저의 마지막 질문은 다소 개인적인 것입니다. 케네디 교수의 새로운 저서는 토머스 맬더스로부터 받은 영감에 힘입은 것입니다. 또한 교수께서는 맬더스를 18세기의 현인으로 지칭하기도 하셨습니다. 제 기억이 옳다면 맬더스 목사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어떻게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학한 뛰어난 학자인 교수께서 캠브리지 대학의 전통을 계승한 학자와 자신을 거리낌없이 동일시하게 되셨습니까?

케네디 교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질 의 사공일 이사장

사회자로서 두 분 토론자의 논평과 질문에 더하여 아주 간략한 질문을 하나 할까 합니다. 저의 질문은 방금 김기환 박사께서 질문하신 것

과 유사합니다. 한 마디로 케네디 교수께서는 다가올 21세기에 대해 낙관적이십니까, 아니면 비관적이십니까? 현대의 몇몇 저명한 사상가는 역사의 종언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반면 자유방임주의의 종언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으며 매우 비관적이거나 반대로 매우 낙관적인 결론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교수께서 정의하신 "단층선"이라는 개념에 비관주의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이지만, 저는 다시 한 번 교수께서 내린 전망이 낙관적인 것인지 아니면 비관적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응 답 **폴 케네디 교수**

감사합니다. 대단히 날카롭고도 어려운 질문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답변을 간단히 하기 위해 마지막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먼저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조건부 낙관주의자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때로는 매우 게을러서 전통적인 사고와 행동방식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다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머리 속에는 워싱턴이나 서울 또는 파리에서 행해지는 판에 박힌 정치에 대한 전통적 유형이 있습니다. 또한 지성이 명령하는 대로 우리가 개혁과 변화를 추진하고자 해도 이를 방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신작에서 토머스 맬더스를 언급한 것은 그가 벌써 2백년 전에 인구에 관한 비관주의적 시론을 썼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류의 기술적 발명이 또다른 변수로 작용하여 자신의 예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변수는 전세계적인 문제, 특히 빈부간의 단층선에 관한 저의 견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제 논의의 핵심은 빈부간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아니라 이러한 도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이 문제가 너무나 복잡해져서 우리를 압도하게 되기 전에 기술적 발명을 활용해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은 조건부로만 가능합니다. 즉 희망의 실현은 다수의 지식인이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국의 정부를 변화하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

렸습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이론, 특히 경제이론상의 경제구조조정이라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프랑스의 밀재배 농민이나 일본과 한국의 쌀재배 농민에게 세계적 추세가 변화했으니 당신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일은 무척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경제이론상으로는 쉬운 일이 정치적 실천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 삶의 방식을 고수하려는 사람에게 변화란 일종의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부문이 모두 변화하도록 설득하지 못하는 한 빈국과 부국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만약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농산물 수출국들이 농민의 수입반대 때문에 유럽시장이나 한국시장에 진출하지 못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10년이나 20년 내에 역으로 우리 자신에게 돌아와 해를 입힐 것입니다.

제가 희망이 있다고 보는 국가들은 변화의 의지를 가진 동시에 국내 산업구조조정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들 사회는 대부분 어느 정도 신세대의 정치가, 기업가, 사상가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대한 변화과정에 있는 멕시코의 지도부는 대학교육을 받은 젊은 정치가들로 구성되었으며 국민들로 하여금 산업구조조정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터키와 칠레, 그리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볼 때 저는 낙관주의로 기울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이나 프랑스에서 전통적인 구세대의 정치 엘리트들이 기득권을 침해당할까 두려워 잔뜩 움추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국가들에게는 도전을 극복하려는 인간적 의지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사실 학자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저 역시 커다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21세기 준비』를 집필한 의도는 전세계적 도전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그려내어 논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람들이 이에 관해 이야기하고 비판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서 미래의 전망을 제시하는 후속편을 구상하고 있으며 통합적

인간윤리, 바꾸어 말하면 뛰어난 독일의 신학자 한스 쿤(Hans Kuhn)이 지적한 전지구적 윤리(global ethic)를 모색해 볼 계획입니다. 통합적 인간윤리란 언어, 문화,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을 통합시키는 것이며, 김박사께서 말씀하신 개혁의 수단이자 진보와 변화가 이루어지는 메카니즘입니다. 원래 올해에 다음 책을 완성할 예정이었으나 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 예일 대학의 연구소가 UN의 21세기 준비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앞으로 2년간은 UN의 체제개혁을 위한 매우 실제적인 프로젝트에 전념하고 그 이후에 집필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구촌 사회를 도울 수 있는 뛰어난 신기술 덕분에 과거보다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 개발원조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창설할 수 있는 여건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인류가 이 문제에 관해 논쟁하고 토론할 의지만 있다면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으며, 정치지도자들이 21세기 준비라는 문제를 긴급한 사안으로 인식하게 된다면 긍정적인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조건부 낙관주의자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 회 **사공일 이사장**

낙관적인 전망을 밝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케네디 교수의 다음 저서가 하루 빨리 출판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 의 **레이먼드 웡** (주한 싱가폴 대사)

저는 아까 김경원 대사께서 제기한 질문을 다시 여쭤 보고자 합니다. 예상되는 중국의 도전에 대해 서양과 미국은 어떻게 반응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응 답 폴 케네디 교수

날카롭고 직선적인 질문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북한문제 전문가가 아니며 북한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북한경제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체제가 오랫동안 지속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지도부가 교체된다면 매우 중대한 내부 변화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다만 관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향후의 추이를 계속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중국이 전세계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력, 즉 미국에게 가장 직접적인 도전세력으로 부상한다면 서양, 특히 미국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는 지식인이나 학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보기에 미국은 장기적인 문제를 고려할만한 능력이 그다지 없습니다. 또한 미국인은 전통적인 사고틀에 얽매여 현재의 역사적 전환점을 계기로 5백년간 지속되어 온 서양의 지배가 끝나고 몇 십년 안에 힘의 중심이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는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서양인, 특히 미국인은 세계의 다른 지역이 서양화 내지 미국화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청년 문화에 대한 새로운 영향, 청바지, 미국대학에 유학하는 외국학생 등을 보면서 미국인은 전세계가 미국을 모방하고 있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수 십년 동안 미국이 직면하게 될 가장 근본적인 도전은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외교적 도전이나 경제적 도전이 아니라 미국의 심리적 사고방식에 대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과연 미국은 역사의 흐름이 다른 문화, 다른 체제를 중심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미국이 아직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유럽인과 미국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현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전개되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가 지나치게 급속하고 극적인 방식으로 전개된다면 오해에 의한 과잉반응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제4의 물결이나 제5의 물결로 불리우는 새로운 산업사회는 복잡한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한편에는 미래의 후기산업사회를 창조하는 발명가와 기업이 있으나 이와 동시에 다른 한편에는 전래의 방식에 따른 제조업과 쌀농사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통과 신기술, 관습과 새로운 사회조직방식 사이의 간극을 중재할 좋은 해결책은 아직 없습니다. 변화의 과정은 고통스러울 것이며 승자와 패자를 나눌 것입니다. 현 사회에서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한국에서는 역사적으로 승자라고 불리울 만한 사람들이—그분들 중 몇 분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대화와 변화의 과정에서 패자가 된 사람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낙관주의와 비관주의 가운데 어느 편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전시기에 미 국방성의 주된 관심사는 소련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소련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었는가 아니면 정체되거나 약화되었는가를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미 국방부에는 전반적인 힘의 균형을 평가하는 특수부서인 순수전략평가국(Office of Net Assessment)이 있습니다. 이곳의 임무는 소련의 힘이 강화되거나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련이 밀을 수입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는 소련의 농업이 정체되거나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소련이 철도를 증설하고 있다는 신호는 소련의 자본보유량이 증가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새로운 정보를 입수함으로써 매년 소련의 미래에 대한 예측을 수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세계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가 비관적인가 하는 문제 역시 이와 같은 방법론에 입각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출산률이 3.2에서 3.1이나 2.9로 떨어지고 있다면 이는 인구폭발이 제어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일 매년 더 많은 국가들이 민주화되고 그 지도부가 국내문제의 해결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이는 보다 낙관적인 신호가 될 것입

니다. 만일 매년 더 많은 국가들이 국방예산을 교육예산으로 돌린다면 이는 더욱 좋은 신호가 될 것입니다. 반면 만일 중국내륙이 갈수록 사막으로 변해간다면, 도시 주변으로 몰려드는 수백만의 농민들이 갈수록 증가한다면, 북아프리카의 수자원이나 목초지가 갈수록 고갈된다면, 그리고 러시아,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우익정당이 갈수록 더 많은 인기를 얻는다면 저는 입장을 수정해서 보다 비관적으로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예측을 수정하는 것만이 미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 국방부의 순수전략평가국처럼 정보 감시체계를 확보하고 현실세계와 그 변화에 기초해서 의견을 계속 수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비관적 징후보다는 낙관적 징후가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현명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예측 역시 구체적인 자료와 정보에 따라 계속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